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건강하고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9회

9. 아담과 예수(예수는 누구인가?)

2010년 5월 22일(안식일 아침)

[행17:26,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序;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언젠가 사형집행이 될 사형수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로서 모범수가 되는 것이 사형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예수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런 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도리가 정말 생명의 도리인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예수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 혈통으로 창조된 인류의 모든 족속

오늘의 본문 행17:26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인류의 어느 족속이든지 다 한 혈통입니다. 그 최초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세상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으로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고 하신 것입니다. 인류는 이 혈통 외에 다른 혈통이 없습니다. 오직 아담의 혈통 그것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중시하지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찾아 바르게 아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족보를 모르면 자기의 뿌리 곧 근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족보와 호적 이것은 다 이렇게 인간 존재와 정체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도 바로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바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를 기록한데는 족보가 나타내는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조상이 없었다면 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평범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키(key)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하여 이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2. 아담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신 것과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과정이 다른 것을 창세기 2장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2:21,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고전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씀은 여자는 남자가 낳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것은 남자에게서 생명을 여자에게 들어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즉 한 혈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내인 하와가 나왔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됨으로 모든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의 족보 맨 처음을 다 아담이라고 써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누가 낳느냐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는가? 태중에서 출산할 때까지 길러서 사람으로 낳는 것은 여자가 하지요. 그러나 그 여자의 태에 생명의 씨를 낳는 것은 남자가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씨는 여자에게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여자에게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생명의 씨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의 생명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이 죽으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3.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을 먹었습니다. 아직 두 사이에서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죽어야 하지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죽었는데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호와와 기념 칭호 심판주로서의 기념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받은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는 것이 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창조주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 창조주에게 창조 받은 존재를 반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핵심 문제라는 것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지요. 그 말은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두 문제, 곧 죽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궁지(dilemma)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함께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죽으면 생육하지 못할 것이고, 생육하게 하려면 죽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주를 세우고 죽는 것과 생육하는 것을 구주 안에서 함께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4. 해결의 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여자가 있는데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신학자들은 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죽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은 대신 죽는 대신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죽으니까 본인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요. 이렇게 조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어주는 분이 있어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 죽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담이 일정기간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 기간에 생육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육하는 자도 역시 아담처럼 일정기간만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바로 일정기간만 유지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하는 원래의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아담 안에서 없어진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은 대신 죽어주는 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후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제라”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씨앗”입니다. 영어로는 seed라고 번역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씨를 주지 않았습디다. 씨는 남자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던 것은 생명이 아담에게서 나와서 여자에게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기르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3:15에서 느닷없이 여자의 씨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창3:15의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꽤나 구체적으로 계시합니다. 이 말씀은 구주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첫째는 구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구주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셋째는 구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씨, 후손입니까?

여자의 씨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남자의 씨, 곧 남자의 후손과 다른 한 생명의 씨가 여자에게서 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남자의 씨와 상관이 없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 곧 남자의 후손과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고 여자에게서만 한 생명이 날 것이며 그가 아담의 죽음을 대신 하여 죽을 것이라는 말입

니다. 그래야 아담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곧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그 생명을 받아서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할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그 생명의 씨로 여자 외에는 한 사람도 생육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생명의 씨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는 참된 생명이 태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제가 사형수라고 했지요. 갓난아기도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무슨 악을 행하였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사형수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구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남자인 아담의 육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자신의 본래부터 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에게 잉태하여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상관없는 상태의 생명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주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생육의 법칙을 따라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 곧 육체의 생명으로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성인, 의인이 있어도 생명 문제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사망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존재로서는 그들이 다 죄인 곧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오직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 자체로 오신 분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며, 생명 자체인 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상태의 여자인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그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서 나오지요.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걸 상태와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이 여자의 씨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 여자에게 잉태된 생명의 씨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마1:18~23]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사람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이 모든 죽을 사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병자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생명으로 와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영원한 실상을 드러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창조의 처음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시조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명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탄생한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여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3:15에 예언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구주이며 그분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명에 일치하지 않은 자는 결코 구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이해하는 한 성경의 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와 의미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계와 신학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성경의 복음을 병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위 다원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는 원래 아담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요1:1~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요1:14)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생명의 씨가 되게 하여 여자에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전혀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담의 육체의 생명, 곧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하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 때만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자가 아닌 생명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사형수를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직도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는 끝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고후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이치를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꼭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는 아침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이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한 이치로 가르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생명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 안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